

기쿠치 계곡에 서식하는 조류

기쿠치 계곡에는 연간 60 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한다. 그중 대부분이 인간을 피해 계곡의 상류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. 그러나 이 지역의 새들을 살짝 엿보는 것은 가능하며, 특히 여름에는 몇몇 특징적인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.

기쿠치가와 강 주변의 나무들에는 등과 날개가 회색, 배가 밤색, 머리가 흑백인 **곤줄박이**, 등이 황록색, 날개가 청회색, 머리가 검은색이고 뺨이 하얀 **박새**, 몸이 옅은 갈색과 회색이고 부리가 뭉툭한 **오목눈이**가 일년 내내 서식하고 있다. 강변에서는 등이 회색이고 배가 선명한 레몬색인 **노랑할미새**와 몸길이 40 센티미터 정도로서 머리에 땃기깃이 나 있는 흑백의 **뿔호반새**도 자주 눈에 띈다.

늦봄부터 여름에 걸쳐서는 철새들의 울음소리가 계곡을 뒤덮는다. 울음소리가 유려하고 아름다운 가락이 있으며 색깔이 선명한 **큰유리새**, ‘쿄쿄 쿄쿄쿄’ 하고 4 구로 구성된 울음소리를 반복하는 **두견이** 등이 있다.

고요함이 계곡을 감싸는 겨울에는 등이 갈색이고 배가 희며, 부리가 회색과 노란색인 **흰배지빠귀**가 먹이를 찾아 낙엽을 쪼는 모습을 볼 수 있다. 또한 잎이 진 나무들 사이에서 **코퍼긴꼬리뿔**의 우아한 모습이 눈에 띌 때도 있다.